

시인의 마을



안개가 흐른다

안개가 바닥에서 하늘로 슬며시 오르며 흐른다  
 나무에서 나무로 살짝 움직인다  
 거센 파도가 물결치듯 밀려온다  
 어디선가 나지막이 들려오는 헛기침 소리다  
 흐르던 안개에 숨겨진 큰 눈동자다  
 새벽잠 설친 고라니를 갈 길 몰라 헤매게 하는 안개다  
 하늘하늘 내려오는 물안개의 야릇한 속삭임이다  
 봄을 나무에서 나무로, 하늘에서 땅으로 전한다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수직 하강한다  
 모락모락 피어나던 수증기가 안개가 되어 흐른다  
 공룡 발톱 같은 솔뚜껑이 열린다  
 그 너머로 형체를 알 수 없는 실루엣이 펼쳐진다  
 먹음직스럽게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은 전갱이다  
 먹고 싶어 군침만 삼키던 그 날처럼 말이다  
 그 누군가에게는, 자연의 질서에 순종하며 생사를 보듬는다  
 그 모양이 피어나는 버들강아지처럼 안개가 흐른다  
 또, 안개가 내리는 날이 누군가는 의미가 없다

안개가 흐르는 벤치에 앉아 감상 모드로 전환한다  
 안개가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흐르는 날이다  
 자연법칙임을 너무나 잘 알기에 무덤덤하게 일상을 누린다  
 고독한 금붕어도 꼬리를 흔든다  
 안개 연못의 흐름에 박자 맞춰 길을 나선다

- 박여범 시인, 안개가 흐른다 전문

시詩를 담다

여섯 시, 집을 나섰다. 물안개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른 새벽이 그를 만나는 지름길이다. 가벼운 달리기와 걷기는 신선한 공기를 맞이하기에 아주 좋은 운동이다. 낮익은 얼굴들이 인사를 건넨다. 아침 운동으로 만나는 이웃이다. 그 이웃의 미소와 땀 냄새가 비가 내리듯 저속하게 물안개를 만들어낸다. 그 누구에게는 축축한 영양제로, 그 누구에게는 생명수로 그렇게 친숙하다. 물안개의 신비함을 표현하는 문장은 쉽지 않다. 행간을 채우기엔 아직 우리는 먼 길을 돌아가고 있다. 자연의 질서에 따라 잊을만하면 나타난다. 버들강아지처럼, 금붕어 한 마리처럼 불현듯 나타나 놀라게 한다. 나이가 쌓여갈수록 도심에 살아야 한다. 병원이 가까워야 촛불 같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 안개가 흐르면 /바닥에서 하늘로/, /나무에서 나무로/, /거센 파도가 물결치듯/ 밀려온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헛기침 소리에도 /놀란 새벽잠 설친 고라니를/, /갈 길 몰라 헤매게 하는/ 안개다. 하늘하늘 내려오는 물안개의 야릇한 속삭임이다. 봄을 나무에서 나무로, 하늘에서 땅으로,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하강하며 퍼져/가는 안개가 흐른다. 흑여, 기대하지 않았던 물안개를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안개 가족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와 설렘으로 잠을 설칠 것만 같다. 이미 나는 안개와 같이 흐르고 있다. 어께등무하고.....



박 여 범  
웅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사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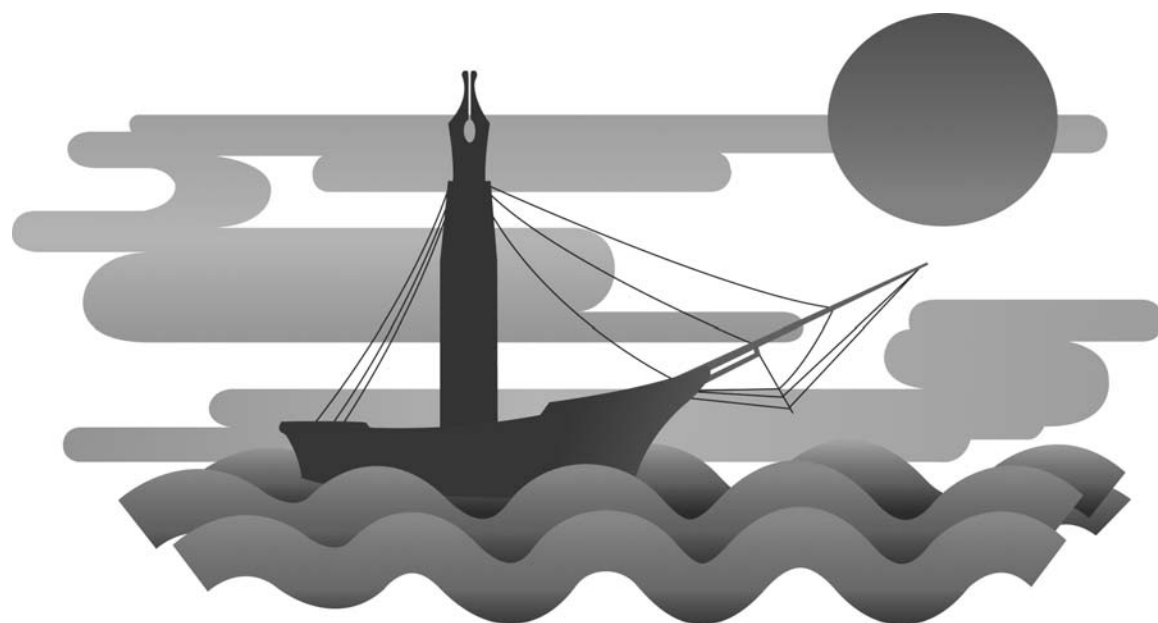
전북 순환관광버스에 거는 기대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순환관광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도내 관광업계는 이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코로나 여파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요즘이다. 코로나 사태는 관광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는 순환관광버스를 3월 19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전북도 순환관광버스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도내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행 상품이다. 전남 해설사와 함께 도내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공모를 통해 2년간 순환관광버스를 운영할 민간 위탁사로 전북도관광협회를 선정했다. 또한 여행사 협약과 운행 코스 정비, 특별 코스 개발을 마쳤다. 운행 코스는 전주종합경기장, 익산역 등에서 출발하는 도내 순환형, 서울과 부산 등에서 출발하는 광역형, 서울역·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코데일 연계형 3개 유형이다. 모두 78개 경로를 운행한다. 올해는 짧은 층을 겨냥한 새만금 단독 코스와 함께 테마 유형별 6개 코스를 새롭게 준비했다. 이용객들은 새만금 방조제 길도 경험할 수 있다. 탑승료는 도내 순환형 1만원, 광역형 당일 3만원 및 1박 2일 9만 7천원, 코데일 연계형 당일 7만 9천원 및 1박 2일 16만 9천원이다. 국내·외 카드 결제 시스템도 구축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52-2988)를 활용하면 된다.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버전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전북도 순환관광버스는 전북의 테마가 있는 관광지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친절하고 수준 높은 해설 안내 등으로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순환관광버스 사업을 통해 전북의 관광산업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주 평화2동 동네 이웃소식

전주시 평화2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요구르트 주교받는 우리 동네 이웃소식'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평화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회원들을 포함한 공동모금회 평화2동 동네 복지기금으로 진행된다. 전주시 평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동네 복지특화사업으로 요구르트 지원사업인 '요구르트 주교받는 우리 동네 이웃소식' 사업의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평화2동 주민센터, 평화2동 주민자치위원회, 평화2동 통장협의회 및 한국요구르트 평화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이뤄지고 있다. "요구르트 주교받는 우리 동네 이웃소식" 사업은 교육사가 우려되는 독거 세대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주 2회 요구르트를 지원함으로써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관내 취약계층에게 요구르트 지원을 통해 정서적 외로움까지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이웃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전주시 평화2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요구르트 주교받는 우리 동네 이웃소식' 사업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이웃 사랑 실천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배려는 물론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